

항구의 불빛

[예시] 지은이 이름

간표지

용감하다고 부르지 않았다. 화요일이라고 불렀다.

제사 · [예시]

항구의 불빛

[예시] 지은이 이름

페이퍼백 템플릿으로 조판한 허구의 소설.

[Example]

저작권

[예시] 허구의 견본이다. 출판된 소설이 아니다. 인쇄할 권리가 있는 원고로 바꾼다.

템플릿 초판. 예시 장소는 모두 지어낸 것이다.

차례

1장 · 빠진 배	7
2장 · 시장의 시간	21
3장 · 쪽지	35
4장 · 물때표	49

시장의 시간

항 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었다. 용감하다고 부르지 않았다. 화요일이라고 불렀다. 마지막 모퉁이에서 빵은 식었고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. 마라는 배를 두 번 세어도 한 척이 모자랐다. 빠진 배는 매번 다르게 묶는 삼촌의 것이었다. 언덕에서 빛이 빠지면 시장이 닫혔다. 빵을 사고 먼 길로 걸으며 쪽지를 주머니에 두었다. 물때표는 세 줄과 연필 자국이었다. 갈매기 한 마리가 계선주에 앉아 도움이 되지 않았다.

쪽지를 식탁에서 읽고 문 앞에서 다시 읽었다. 등대 방은 기름과 젖은 털 냄새였다. 누가 계단을 쓸고 빗자루를 세 번째 단에 두었다. 항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었다. 용감하다고 부르지 않았다. 화요일이라고 불렀다. 마지막 모퉁이에서 빵은 식었고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. 마라는 배를 두 번 세어도 한 척이 모자랐다. 빠진 배는 매번 다르게 묶는 삼촌의 것이었다.

언덕에서 빛이 빠지면 시장이 닫혔다. 빵을 사고 먼 길로 걸으며 쪽지를 주머니에 두었다. 물때표는 세 줄과 연필 자국이었다. 갈매기 한 마리가 계선주에 앉아 도움이 되지 않았다. 쪽지를 식탁에서 읽고 문 앞에서 다시 읽었다. 등대 방은 기름과 젖은 털 냄새였다. 누가 계단을 쓸고 빗자루를 세 번째 단에 두었다. 항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었다. 용감하다고 부르지 않았다. 화요일이라고 불렀다.

등대 방은 기름과 젖은 털 냄새였다. 누가 계단을 쓸고 빗자루를 세 번째 단에 두었다. 항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었다. 용감하다고 부르지 않았다. 화요일이라고 불렀다. 마지막 모퉁이에서 빵은 식었고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. 마라는 배를 두 번 세어도 한 척이 모자랐다.

빠진 배는 매번 다르게 묶는 삼촌의 것이었다. 언덕에서 빛이 빠지면 시장이 닫혔다. 빵을 사고 먼 길로 걸으며 쪽지를 주머니에 두었다. 물때표는 세 줄과 연필 자국이었다. 갈매기 한 마리가 계선주에 앉아 도움이 되지 않았다. 쪽지를 식탁에서 읽고 문 앞에서 다시 읽었다.

등대 방은 기름과 젖은 털 냄새였다. 누가 계단을 쓸고 빗자루를 세 번째 단에 두었다. 항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었다. 용감하다고 부르지 않았다. 화요일이라고 불렀다. 마지막 모퉁이에서 빵은 식었고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. 마라는 배를 두 번 세어도 한 척이 모자랐다.

물때표는 세 줄과 연필 자국이였다. 갈매기 한 마리가 계선주에 앉아 도움이 되지 않았다. 쪽지를 식탁에서 읽고 문 앞에서 다시 읽었다. 등대 방은 기름과 젖은 털 냄새였다. 누가 계단을 쓸고 빗자루를 세 번째 단에 두었다. 항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였다.

용감하다고 부르지 않았다. 화요일이라고 불렀다. 마지막 모퉁이에서 빵은 식었고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. 마라는 배를 두 번 세어도 한 척이 모자랐다. 빠진 배는 매번 다르게 묶는 삼촌의 것이였다. 언덕에서 빛이 빠지면 시장이 닫혔다. 빵을 사고 먼 길로 걸으며 쪽지를 주머니에 두었다.

물때표는 세 줄과 연필 자국이였다. 갈매기 한 마리가 계선주에 앉아 도움이 되지 않았다. 쪽지를 식탁에서 읽고 문 앞에서 다시 읽었다. 등대 방은 기름과 젖은 털 냄새였다. 누가 계단을 쓸고 빗자루를 세 번째 단에 두었다. 항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였다.

등대 방은 기름과 젖은 털 냄새였다. 누가 계단을 쓸고 빗자루를 세 번째 단에 두었다. 항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었다. 용감하다고 부르지 않았다. 화요일이라고 불렀다. 마지막 모퉁이에서 빵은 식었고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. 마라는 배를 두 번 세어도 한 척이 모자랐다.

빠진 배는 매번 다르게 묶는 삼촌의 것이었다. 언덕에서 빛이 빠지면 시장이 닫혔다. 빵을 사고 먼 길로 걸으며 쪽지를 주머니에 두었다. 물때표는 세 줄과 연필 자국이었다. 갈매기 한 마리가 계선주에 앉아 도움이 되지 않았다. 쪽지를 식탁에서 읽고 문 앞에서 다시 읽었다.

등대 방은 기름과 젖은 털 냄새였다. 누가 계단을 쓸고 빗자루를 세 번째 단에 두었다. 항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었다. 용감하다고 부르지 않았다. 화요일이라고 불렀다. 마지막 모퉁이에서 빵은 식었고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. 마라는 배를 두 번 세어도 한 척이 모자랐다.

물때표는 세 줄과 연필 자국이었다. 갈매기 한 마리가 계선주에 앉아 도움이 되지 않았다. 쪽지를 식탁에서 읽고 문 앞에서 다시 읽었다. 등대 방은 기름과 젖은 털 냄새였다. 누가 계단을 쓸고 빗자루를 세 번째 단에 두었다. 항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었다.

용감하다고 부르지 않았다. 화요일이라고 불렀다. 마지막 모퉁이에서 빵은 식었고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. 마라는 배를 두 번 세어도 한 척이 모자랐다. 빠진 배는 매번 다르게 묶는 삼촌의 것이었다. 언덕에서 빛이 빠지면 시장이 닫혔다. 빵을 사고 먼 길로 걸으며 쪽지를 주머니에 두었다.

물때표는 세 줄과 연필 자국이었다. 갈매기 한 마리가 계선주에 앉아 도움이 되지 않았다. 쪽지를 식탁에서 읽고 문 앞에서 다시 읽었다. 등대 방은 기름과 젖은 털 냄새였다. 누가 계단을 쓸고 빗자루를 세 번째 단에 두었다. 항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었다.

등대 방은 기름과 젖은 털 냄새였다. 누가 계단을 쓸고 빗자루를 세 번째 단에 두었다. 항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었다. 용감하다고 부르지 않았다. 화요일이라고 불렀다. 마지막 모퉁이에서 빵은 식었고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. 마라는 배를 두 번 세어도 한 척이 모자랐다.

빠진 배는 매번 다르게 묶는 삼촌의 것이었다. 언덕에서 빛이 빠지면 시장이 닫혔다. 빵을 사고 먼 길로 걸으며 쪽지를 주머니에 두었다. 물때표는 세 줄과 연필 자국이었다. 갈매기 한 마리가 계선주에 앉아 도움이 되지 않았다. 쪽지를 식탁에서 읽고 문 앞에서 다시 읽었다.

등대 방은 기름과 젖은 털 냄새였다. 누가 계단을 쓸고 빗자루를 세 번째 단에 두었다. 항구는 흰 흙이 하나 있는 검은 그릇이었다. 용감하다고 부르지 않았다. 화요일이라고 불렀다. 마지막 모퉁이에서 빵은 식었고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. 마라는 배를 두 번 세어도 한 척이 모자랐다.

